

송아지의 선발요령

차장 김 동 혁

자우는 심사평가시의 체형이 우수하였으나 성장후에 열등한 소로 되었을 때에는 자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우의 관찰은 현상상태에서부터 성장후의 장래를 예견하면서 심사평가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며 이를 일명 상우라고도 칭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우를 선발하는 것이란 참으로 중요한 사항이며 이에 대한 실제요령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혈통과 계통이 우수할 것

자우로서의 순수한 품종인 것이어야 하며 특히 등록이 되어 있어 부모의 혈통이 확인된 것이면 더욱 이상적이라 하겠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혈통등록을 마친 자우는 호가를 받을 수가 있으며 더욱이 능력검정우의 자우에 한하여는 2배 이상의 고가로 매매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2. 혈통과 계통에 특색이 있을 것.

성우에도 계통적 특색이 있는 것과 같이 자우의 경우에도 그의 발육이나 체형에 계통적 특색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A계통의 자우는 자질과 균형의 우수함이 성장후에도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B계통의 자우는 자질과 균형이 우수하였으나 성장후에 보통의 경우로 그 특징을 보유하는 것이 있다. 이들은 주로 종모우의 산자에 미치는 유전적인 현상으로서 계통에 유의하여 자우를 선발함이 바람직하며 현재 한우등록확대지구에 지정종모우를 지정하여 계획적인 인공수정사업을 추진함도 바로 이런 특색을 보완하는 것이다.

3. 발육이 좋고 건강한 자우일 것

자우는 체중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체고나, 각부위의 발육이 우수한 것을 선발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우의 경우에는 하리나 호흡기질환의 경우가 많으므로 매입할 경우에는 이런 점에 유

의 하여야 한다.

4. 장래 조속하고 사양이 용이할 것

자우의 경우 월령에 비하여 보다 큰 자우가 대체적으로 장래에도 크게 육성되지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다소 있다. 장래 큰 소로 성장하는 자우 요건으로서는

가. 골조가 큰 것

나. 체고에 비하여 십자부고가 높은 것

다. 비질이 높고 계부가 긴 것

라. 성우의 균형보다 장자인 것

마. 살붙임이 있고 체중이 과중한 것은 피할 것

바. 사육이 용이하고 사료이용성이 높은 것이어야 하며, 이 항목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우 나뭇의 체폭, 체심을 갖춘 것

○머리, 목은 짧고 입과 코는 크고, 턱이 잘 발달한 것

○기갑이 두터운 것

○목덜미가 넓은 것

○갈비의 개장이 좋고 긴 것

○피부의 탄력이 있는 것

○사지가 가늘지 않은 것

○성질이 신경질이 아닌 것

사. 체형이 균형이 우수한 것

장래 번식에 이용할 자우는 무엇보다도 체구 구성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육성도중이나 일산후에 체형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우의 체구 구성은 보다 정상적인 것이 중요하며 이 항목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배요가 강하고 배선이 평직할 것

○어깨의 부착이 좋고 기갑이 비교적 두터울 것. 견단은 이완되지 않은 것

○비질이 정상이고 후지가 정자세인 것

○낙경이 아닌 놋

○계부가 단단하고 발통이 큰 것

○척진 배가 아닌 것

5. 비만과 수척은 피할 것

영양과 발육이 양호한 자우가 시장에서 고가로 매매되고 있는 탓으로 영양과다인 자우가 다소 눈에 띄이는 것이 있는데, 하결부, 턱노리미, 유방 등에 지방으로 인한 비만자우는 외모상으로는 결함이 없어 일견 우량자우로 보이거나 이윽하여 사양관리가 변하면 제대로 증체가 되지 않으며 외모상의 결점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비육우로서 사사의 경우는 무리가 아니겠지만 번식우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과비한 것은 초산후에 유량이 떨어지는 것이 사례인 것이다.

그리고 수척한 자우는 환축이거나 사료의 이용성이 불량한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목의 경우에는 체형도 우수하여지므로 사양관리방법 등에 따라서 자우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6. 자우로서의 체형자질을 갖춘 것

자우는 성우의 경우보다 체고에 대한 체심, 체폭, 체장의 비율이 낮으며 거의 장각으로서 길이와 폭 등이 불충분한 것이 정상적이다. 따라서 자우의 경우 성우와 같은 체형을 갖춘 것은 우량한 소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체각부위에 있어 발육의 속도가 상이한 것이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십자부고가 생후 11.3개월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며 다음이 체고로서 13.9개월, 그리고 관위가 13.8개월로 조속하는 편이다. 가장 성장이 늦은 것은 요각폭으로 25.6개월이 된다. 따라서 자우의 경우 십자부고가 체고보다 높은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십자부가 체고보다 2개월 이상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유시에 십자 부고가 체고보다 낮은 자우는 발육이 불량한 소로 성장하는 것이다. 후구폭에 있어서는 요각폭이 25.6개월, 그리고 곤폭이 18개월로 역시 곤폭이 약령기에 크게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유시에 이미 곤폭보다, 요각폭이 넓은 것은 성장후 요각과광, 곤폭과협의 소로 되기 쉽다. 이상과 같은 경향은 모우에서도 같은 현상이나 빈우보다

다소 늦게 성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배우는 축사로서 판단하는데 되도록이면 평직하여야 한다. 다음에 궁둥이로서 요각폭, 고장, 곤폭, 좌골폭 등의 균형이 잘 짜여 있고 특히 후지가 곧바로 서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갈비의 개장인데 이는 성우처럼 잘 개장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조사료를 많이 섭취하면 제일위의 발달에 연이어서 갈비도 뒤따라 발달하게 된다. 또한 포유중의 갈비는 개장도보다는 갈비의 부착상태를 관찰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등과 갈비의 접합부위를 축사할때 단이 있는 것은 갈비의 부착이 불량한 것이므로 그 부위가 평활하며, 그리고 최후의 갈비뼈가 잘 뻗어져 각도가 큰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갈비는 조사료를 섭취하면 잘 개장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피모와 피부에 있어서 생모는 역시 담갈색이나 3~4개월이 지나면 흰모로서 갈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피부는 성우의 심사요령에 준하는 것이 보통이며 모우에 있어서는 빈우와 달라서 성장하여 성상이 관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갈비보다 목부위의 피부가 두텁게 된다.

끝으로 빈우의 유방전체를 만져보아 충분히 여유가 있고 유연하고 유두는 크고 배열이 좋아야 한다. 모우의 고환은 정상으로 하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체는 7~8개월령에 달하면 성우에 준하여 관찰하며 어린 자우의 경우에는 확실한 정자세가 어려우므로 자연적인 자세에서 지세, 비절, 제 등을 관찰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자우에 대한 선발과 평가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자우를 관찰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여 훈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성숙 90%에 이르는 체각부위의 월령

성	부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위	흉심	흉폭
번		13.9	11.3	17.2	19.5	18.4	23.5
모		17.2	13.3	23.8	30.5	26.4	28.0
성	부	요각폭	관폭	좌골폭	고장	관위	
번		25.6	18.0	21.3	19.9	13.8	
모		32.7	24.0	26.5	28.8	21.1	